

‘난방비 쇼크’ 들끓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

당정, 바우처 확대 등 마련

민주, ‘고물가 지원금’ 제안

재원은 기업 ‘횡재세’ 로 충당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를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가별 가스요

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많아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

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를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도하차’ 권성동·나경원 여 당권 레이스 변수되나

권 의원, 전당대회 거리두기

권성동 의원이 이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 국민 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전대 국면에서 두 사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김기현·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가 한층 뚜렷해진 가운데 ‘원조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또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초반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당권 도전을 고심하다 출마를 접은 권 의원은 전당대회 레이스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5일 불출마 선언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주 이민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해외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다. 지난 17일 귀국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는 상태다.

김·안 의원과 나 전 의원 간 3파전 구도가 치열했던 만큼, 선봉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었다가는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고 해도 ‘윤해관 만행’으로서 정치적 입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주 전당대회 후보등록(2월 2~3일)이 시작되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이런 ‘중립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나 전 의원 불출마로 선택지는 ‘진윤’(진윤석열)계가 전폭적으로 미는 김 의원과

‘범윤’(범윤석열)계로 평가되지만, 구도상 ‘비윤’(비윤석열)으로 묶일 수 있는 안 의원의 돌출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해관’이라는 타이틀을 고려하면 중국적으로 김 의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권 도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적 골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의원을 지원하자는, 본인이 출마를 접으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에서는 내심 권 의원과 ‘연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 측은 통화에서 “모든 윤해관을 싸잡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 가령 권성동 의원은 충직한 분 아닌가”라면서 “전당대회 경선이 본격화하면 그동안 용산 의중을 왜곡해 당 분위기를 휘젓고 다니는 일부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발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표’의 향방도 변수다. 나 전 의원 역시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내가 역할 할 공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주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논치 게임’이 시작됐다.

‘당원투표 100%’로 치러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원층 지지세가 두터운 나 전 의원의 연대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민주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기구 마련 최선”

유가족들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독립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거듭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추

모를 위한 입법 등 제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수습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독립 진상조사 기구에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유가족 참여 ▲참사 관련 자료 요청권 등 행정 권한 담보 ▲조사 결과 국회 보고 및 징계·특별검사(특검)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

들과 만나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이 재난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임명됐다”며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또 다른 참사가 재연될 수 있으니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도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 독립 진상기구의 당위성 등을 간곡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